



이미숙 작 '운주사 봄, 겨울'

# 화순 적벽부터 세랑지까지...앵글이 향한 곳

### 화순군립 천불천탑사진문화관 '화순이야기IV-8경' 4월 17일까지 김경애·조옥래 등 16명 50여점 전시

산빛꽃이 만개한 세랑지의 모습, 하얀 눈에 덮인 운주사의 천불천탑, 봄이면 자태를 뽐내는 만년산의 철쭉, '아름다운 마을 숲'에 선정된 연둔리 숲정이...

화순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명소들이다. 아름다운 화순의 풍광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4월17일까지 화순군립 천불천탑사진문화관(명예관장 오상조)에서 열리는 사진전 '화순이야기IV-8경' 전이다.

지난 2017년 개관한 사진문화관은 이듬해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화순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을 열고 있다. 지금까지 '만남', '고인돌', '누정'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고 올해는 '화순 8경'을 주제로 삼았다.

군이 화순을 찾는 이들에게 치유와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선정한 '8경'은 천혜의 절경을 가진 곳들이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역사, 문화, 유적, 음식, 특산물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화순 8경'에는 풍부한 물과 기암괴석, 환상적인 숲과 나무, 수려한 산과 석조 문화가 담겨 있다. 1경 화순적벽, 2경 운주사, 3경 백아산 하늘다리, 4경 고인돌 유적지, 5경 만년산 철쭉공원, 6경 규봉암, 7경 연둔리 숲정이, 8경 세랑지 등이다.

올해 사진공모에는 모두 325점이 출품됐고 이 중 50점을 선정, 전시회를 꾸렸다. 사진에 등장하는 장소들은 동일한 곳이어도 계절에 따라, 낮과 밤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공모에 참여한 작가들은 솔하게 발품을 팔고, 날을 새며 자신만의 장면을 포착했다. 모두 오랜 시간 화순의 비경을 앵글에 담아온 사람들이다.

이번 전시에는 김경애·김금옥·김병철·류기수·박관영·박종호·박철수·백순현·양보영·오금주·임미숙·임부택·전지현·조옥래·채수웅·홍규표 등 16명의 작가가 참여



홍규표 작 '세랑지의 봄'

했다.

화순군 도암면 운주사 입구에 문을 연 천불천탑사진문화관은 군 단위 중 유일하게 사진전문전시장을 갖춘 곳으로, 화순을 넘어 남도지역의 삶의 원형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의미있는 행보를 이어가며 남도사진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관련 전시와 교육, 행사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진문화관은 화순의 풍경이 담긴 사진 아카이브를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영산강'을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람료 무료.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시민들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 정용규 개인전, 4월1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

정용규 작가의 그림은 서정적이고 따뜻하다. 간이역의 소박한 풍경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겨운 모습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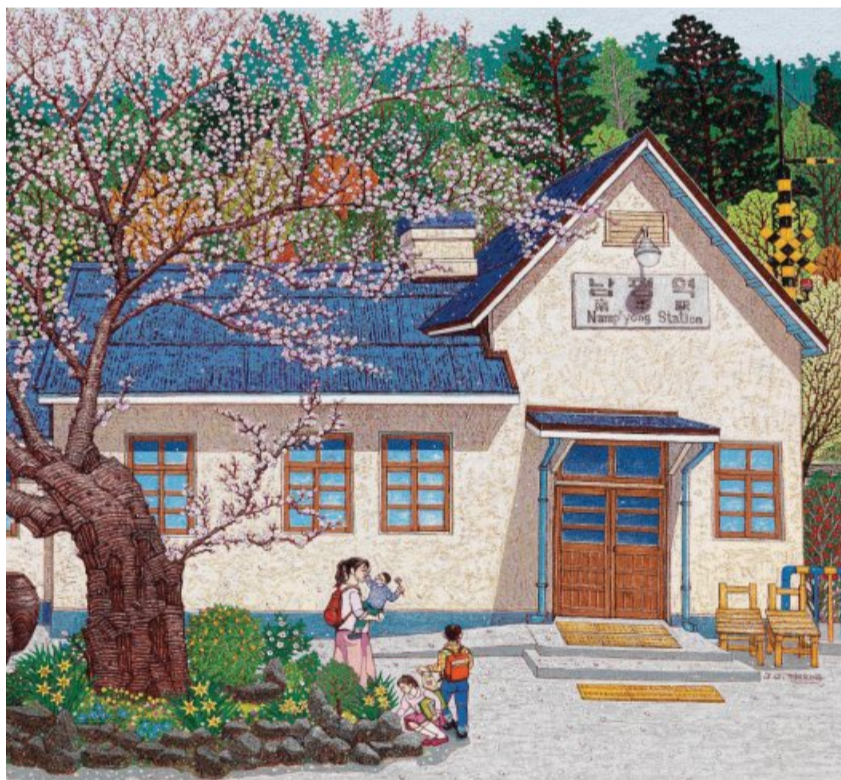
서양화가 정용규 작가 초대전이 오는 4월1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북구 구민상 수상 기념으로 마련된 초대전이다. 정 작가는 북구 미술인 조형연구회를 운영하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흥동 지하보도 '바다쉼터 갤러리', 양산동 따스마을 길거리 갤러리 등을 조성,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아 문화예술체육 부문에서 수상했다.

'빛과 희망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모두 30여점의 작품이 나왔다. 전시작 중 흐드러질듯 핀 샛노란 산수유가 눈길을 끈다. 삶의 여유를 잃고 힘들 때마다 황금빛 산수유꽃은 그에게 용기와 위로를 줬다. 작품 '봄 햇살 따스한 날'은 한편의 이야기 같다. 화면을 가득 채운 산수유 나무와 집에서 키운 농산물을 파는 농부들의 모습,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화사한 색깔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다. 지혜를 상징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그가 즐겨 다루는 소재이고 강렬한 느낌의 해바라기, 자유분방하게 뛰어노는 사슴 등도 자주 모습을 보인다.

그밖에 무등산의 '주상절리'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한 작품과 시골마을의 담벼락과 향아리가 어우러진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정 작가는 서울과 광주, 화순에서 13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심사위원장 등



'간이역에서'

을 역임했으며 현재 그룹 새벽과 토만사, BK조형연구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젓가락으로 본 한국인 문화유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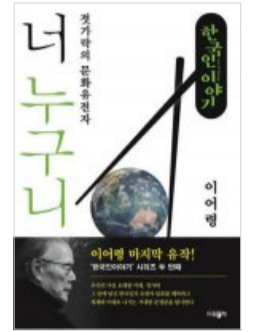
### 이어령 전 장관 유작 '너 누구니' 출간

"나뭇가지를 꺾어 두 개로 짝을 만들고 음식을 잡는 순간 자연과는 다른 문화의 세계, 그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한국인에게 '젓가락'은 문화의 도구이자 가장 '오래된 미래'이다. 또한 '젓가락'은 하드웨어, 젓가락질은 소프트웨어이기도 하다.

지난달 별세한 시대의 지성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유작 '너 누구니' (파람북)가 발간됐다. 이 장관의 마지막 흔이 새겨진 책은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를 탐색하는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 두 번째 저서다. 저자는 동양사상과 아시아의 생활양식을 한국의 젓가락 문화로 보고 이를 토대로 특유의 문화유전자를 밝힌다.

서양의 나이프 포크 문화, 중동과 인도의 수식 문화와 구분되는 동양의 독특하고 오랜 젓가락 문화가 생겨났다. 동양의 전통에 비추어 보아도 한국의 젓가락 문화는 독자적이다. 숟가락을 같이 쓰고 재질을 금속으로 하는 우리의 젓가락은 국물 문화, 짭 문화와 통한다. 이른바 조화의 정신



과 포용의 자세와 연관된다.

"인간만이 불 앞에 용기있게 모여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수한 별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허구, 상상의 세계를 침범하지 꾸며낼 순 없습니다. 인지 혁명으로 창조적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존재, 곧 호모 나랑스(이야기하는 인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문화적 연원이 '호모 작대기', '호모 부지깽이', 그리고 '호모 젓가락'으로 연결됩니다."

젓가락으로 시작된 저자의 문화유전자 이야기는 생명공감이라는 미래상까지 이어진다. 저자의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에 담긴 인문학적 통찰, 치열하게 빛났던 탐구 정신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라바와 함께하는 키즈클래식'

### 광주시향, 5월5일~7일 북구문화센터

올해 어린이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클래식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5일(오전 11시, 오후 3시)·6일(오후 7시30분)·7일(오전 11시, 오후3시) 3일간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라바와 함께하는 키즈클래식'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날 특별음악회로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연의 지휘와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애니메이션 '라바'를 보며 신나고 경쾌한 클래식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공연 내내 라바의 두 주인공 '레드'와 '옐로우'가 아이들과 함께 교감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스토리를 생동감 넘치는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펼쳐진다.

꿀뜰대는 듯한 캐릭터, 신나는 클래식 음악을 접목한 매력적인 장면, 그와 더불어 멋진 클래식 연주가 시각·청각적으로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기발한 상상력과 감수성이 곳곳에 배어있는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 '헝가리 무곡',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 요한스



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림스키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그리고 '페르 귄트 모음곡' 등 다양한 명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전석 1만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36개월 이상 관람가)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국립남도국악원 '청소년 국악체험' 참가자 모집

국립남도국악원은 '2022 청소년 국악체험' 참가자(단체)를 모집한다.

'2022 청소년 국악체험'은 전남지역 청소년들이 국악공연관람과 국악배우기(강간술래 등)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박2일 과정과 전국 모든 청소년들이 공연관람 및 민속놀이체험을 할 수 있는 당일 체험과정으로 운영한다.

모집은 전국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인원은 1박2일 과정은 회당 40명, 당일체험은 회당 190명 이하이고 모든 체험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은 오는 4월5일 오전 9시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61-540-4038.

/전은재 기자 ej6621@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